



정교회주보

제2511호

2025.02.0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프리오디온 기간 시작)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성 니키포로스 순교자
성 빵그라피오스 주교
(제8조 • 조과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입당 축일 제2응송	164
• 제8조 부활 찬양송	82
• 입당 축일 입당송	164
• 입당 축일 찬양송	164
• 성당 찬양송	
• 입당 축일 시기송	164
• 사도경 : 디모테오 후 3,10~15 (봉)407	
• 복음경 : 루가 18,10~14	133
• 성모송	166
• 영성체성혈송	166

사진 설명 거룩한 안티민션

안티민션(사진)은 보통 리넨(아마亞麻 실로 짠 얇은 직물)이나 비단으로 만들며, 신성한 표상과 상징을 그린 네모진 천이다. 안티민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안티와 제단을 의미하는 라틴어 멘사에서 유래했다. 제단 중앙에 있는 복음서 아래에 항상 접혀있지만 성찬예배의 대입당으로 예비 제단에서 거룩한 제단으로 옮겨지는 성반과 성작을 위해 펼쳐놓는다. 또한 아직 축성되지 않은 성당이나, 거룩한 제단이 없는 곳에서 성찬예배를 거행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거룩한 제단은 주님의 무덤을 상징하므로, 안티민션 중앙에는 무덤에 모셔진 주님이 그려져 있다. 가장자리 4면에는 복음 저자가 자리한다. 안티민션은 순교자의 성해가 안치되어 봉헌된 거룩한 제단을 대체하기 때문에 가장자리 중간에는 순교자의 성해가 봉합되어 있다.

함께 가는 길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어느 토요일 오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붉게 상기된 얼굴에 뭔가 불안하고 화가 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대뜸 정교회로 적을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물으니, 다니는 교회가 또 사람들이 맘에 안 든다. 그래서 이 성당으로 오고 싶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정황상 아마도 싸우고 헛길에 그 길로 왔지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당신은 우리 성당에서도 얼마 후에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곳이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는 우리 성당에 올 수 없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그렇게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하느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사람에게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 없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행동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오 7,3)라고 말씀하시며,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허물고 편견을 버리고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갈등을 극복하며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의 하느님을 평화의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큰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오늘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제대로 함께 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쁘르피리오스 성인의 선물 (2)

어느 무명인의 개인적 증언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성인도 또한 새들을 무척 사랑하셨으며, 아토스 성산의 나뭇잎에 숨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나이팅게일 새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였다. 아래의 이야기는 성인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이다.

“한번은 아침에 아토스산의 원시림 속을 혼자 걷고 있었다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모든 것이 햇빛에 반짝였지. 좁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서 그것을 가로지르고는 바위 위에 앉았다네. 차가운 물이 내 옆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나는 예수 기도를 드렸지. 너무도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곧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달콤하면서도 황홀한 목소리가 노래하며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네.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마침내 반대편 나뭇가지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걸 봤지. 나이팅게일 새였어. 나는 그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어. 그건 자신을 찢어내는 소리였어. 새는 자기 목을 후두부로부터 한껏 부풀렸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날개를 뒤로 젖히며 힘을 내고 있었어. 놀라웠어! 물을 한 잔 떠서 새의 목마름을 식혀주고 싶었지. 새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동안 내 두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 바로 그 은총의 눈물이...”

그리고 그 새 울음소리가 언제 그쳤는지 아는가? 성찬예배가 끝났을 때였다! 하지만 성찬예배 내내 이 새는 성가대원이 성가를 그쳤을 때와 사제가 하느님께 요청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자기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에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가 그 새를 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새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새를 놀라게 하거나 멀리 날아가 버리게 할까 봐 겁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거기 머무르며, 작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가 성인의 축일에 아주 엄숙하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다음날 나는 나의 영적 아버지에게 그 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분은 주의깊게 들으시더니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건 성인의 선물이었어!” “성인께서 당신의 축일을 맞아 너에게 선물을 주신 거야! 큰 축복이지!”

성인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성인은 우리를 대하신다. 보잘것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작은 새가 뿌르피리오스 성인의 축일 저녁 내내 우리와 함께 머물며 기도와 청원에 참여한 것이었다. 참으로 귀한 선물이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 영광!



■ **프리오디온 기간을 잘 보냅니다**
 오늘부터 프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과 이어지는 대사순절을 영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련 서적(‘대사순절’, ‘성 에프렘의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프리오디온을 의미있게 보내고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번 주간은 첫 주간으로 금식이 해제됩니다.

알 림

■ 대교구 겨울 수련회 안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대교구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초, 중, 고등학생 : 2/11(화)-14(금) (참가비 9만원)
-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 : 2/14(금)-16(일) (참가비 6만원)
-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울산 성당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방문

지난 주말(1-2일) 울산 성당을 방문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박인곤 요한 신부와 함께 토요일 낮에 김성동 디오니시오스 교우와 김현아 에브게니아 교우의 결혼성사를 집전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길 기원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후에는 대만과를 드렸고, 주일 아침에는 조과와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당 축일을 맞아, 대주교께서는 설교를 통해 주님의 입당에 대해 성서 구절과 성화를 설명했습니다. 또, 영성체성혈로써 하느님을 몸 안에 모시고 죄 사함을 받는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을 품에 안았던 시메온 예언자보다 얼마나 더 큰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랑의 오찬을 나누고, 설 명절을 맞아 모든 신자들이 대주교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영성의 샘터

오직 선의로

피민 성인이 말했다.

“‘악으로 악을 내쫓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에게 선행으로 화답하러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선의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